

[기획] >> 5면
우리학교 편입생의 어려움

[심층] >> 7면
청년지원정책

[학술] >> 9면
우리나라 대통령제

[인물] >> 12면
김봉수 비온드코리아 대표를 만나다

새롭게 대두된 학제 개편, 우리 학교의 미래 모습은

인문과학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외부인 출입을 금지합니다.

지난달 14일 우리학교 제10차 이사회 회의록 내용이 공개됐다. 회의록엔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의 공약 중 융합대학 확대와 학과 개편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대두된 학제개편 및 교육과정 계획△학생사회의 반응△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글·사진 장래산 기자 03raesan@hufs.ac.kr

컴퓨터공학부, 트레이딩 알고리즘 NFT 발행 착수해

이번 달 2일 우리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으로 구성된 팀 'Mars'와 IT기업 트라우인포테크(Traum Info Tech)가 트레이딩 알고리즘 NFT(대체 불가능 토큰) 발행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2020년부터 우리학교 인공지능 교육원과 트라우인포테크는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캡스톤디자인 산학 협력'을 맺고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이번 트레이딩 알고리즘 NFT 발행은 지난해까지 이뤄진 캡스톤디자인 산학 협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해당 NFT는 투자 방식의 기초 개념인 투자지지와 저항선에 관한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다. 트라우인포테크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투자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Mars는 트라우인포테크와의 간담회를 진행해 NFT 발행을 결정했고 해당 알고리즘 NFT는 '콘텐츠 쇼퍼(contents shopper)'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콘텐츠 쇼퍼는 트라우인포테크가 개발한 NFT 시장으로 여러

알고리즘 기술을 NFT로 거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트라우인포테크는 코딩 전문가에게만 의존했던 기존 알고리즘 트레이딩 분야를 일반인을 상대로 대중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Mars 팀장 전종민(공과·컴퓨터 17)씨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인의 투자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매매전략 수립에 도움을 줘 건강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중 우리학교 인공지능 교육원 교수는 "우리학교는 인공지능 시대를 개척하는 글로벌 융합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하고 있다"며 "트라우인포테크와 함께 인공지능과 딥러닝(Deep Learning)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트라우인포테크 대표는 "NFT는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사업으로 주목받는다"며 지적재산권을 거래하는 NFT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 계획을 전했다.

김상연 기자 04sangyeon@hufs.ac.kr

우리학교, 수원시 영통도서관과 인문학 프로그램 협력 체결해

지난 2일 우리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이하 HK+ 국가전략사업단)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도서관(이하 영통도서관)이 서면으로 영통도서관의 세계문화 관련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영통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세계문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영통도서관과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HK+ 국가전략사업단의 협력을 통해 수원시민에게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HK+ 국가전략사업단은 영통도서관의 인문학 사업과 독서교육 문화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HK+ 국가전략사업단이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지역 인문학센터인 '플레랑스(Tolerance)'가 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사 섭외 등을 담당한다. 영통도서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달 16일부터 5월 4일까지 영통도서관과 플레랑스는 2022년 영통도서관 세계문화기행 시리즈 1-동

유럽·발칸유럽 문화의 이해'를 진행한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전략적 장소인 동유럽 발칸 지역 국가들의 독창적인 문화를 내용으로 다루는 강좌다. △ '광기의 상흔, 아반의 기억-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 '광장의 도시, 프라하' △ '동유럽 문화 들여다보기' △ '발칸반도 루마니아로 떠나는 역사문화기행' 등 총 8차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강좌는 우리학교 △ 김상현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교수△김용덕 폴란드어과 교수△김철민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교수△백종필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교수△송순섭 체코·슬로바키아어과 교수△엄태현 루마니아어과 교수△이상동 헝가리어과 교수가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영통도서관과 HK+ 국가전략사업단은 꾸준한 협력을 통해 올해 6월과 하반기에 8차시로 구성된 두 강좌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2022 상반기 삼광바이오텍 그룹 공개채용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공헌하는
삼광바이오텍 그룹과 함께 성장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03.07 (월) ~ 04.03 (일)
- 모집부문** 마케팅, 학술, 전략기획, R&D, HR, IT, 임상병리사 등
- 지원방법**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https://sml.recruiter.co.kr>)

채용홈페이지
바로가기 →



- #바이오
- #헬스케어
- #메디컬랩
- #정밀의학
- #임상병리
- #코로나19 진단검사

우리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진행해

이번 달 2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국제관 애경홀에서 '2022학년도 우리학교 입학식'이 진행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전에 신청한 소수 인원만이 현장 참석했고 유튜브(YouTube) 생중계로 동시 송출됐다. 입학식 진행은 오세홍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학생인재개발처장이 맡았다. 식전 행사로 사회 각지에서 활동하는 우리학교 동문의 축하 영상이 상영됐다. 이후 설캠 응원단 '아이기스(ABIGIS)'와 글캠 한국학과 전통춤 동아리 '나빌레라'가 공연을 선보이며 본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입학식은 △기수단 입장 △국립민례스내빈 소개 △입학 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축사 △교과제창 순으로 이뤄졌다. 박정운 우리학교 제12대 총장(이하 박 총장)은 축사에서 "학교 구성원을 대표해 입학 축하한다"며 학생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4년을 보내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박 총장은 우리학교가 △인공지능

첨단융합 시스템 △외국어 지역학 △코트라(KOTRA) 인턴십 △'7+1'파견 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의 기회가 있는 대학임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학생이 발전하고 성공하는 대학 △학생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및 교육환경 등 이상적인 대학의 모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2022학년도 우리학교 입학식(출처: 우리학교 홍보실 흡스온)

신입생에게 바라는 점으로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함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노력 △학교 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꼽았다. 박 총장은 "총장으로서 최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며 함께 뜻을 모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부를 밝혔다. 박 총장과 더불어 축사를 맡은 양인직 우리학교 제

33대 총동문회장(이하 양 회장)은 "17만 외대 동문을 대표해 입학 축하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미래의 불확실함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며 "목표에 도달하려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튜브 생중계로 입학식을 시청한 김솔리(국제지역·러시아 22)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입학식이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된 점이 아쉬웠지만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입학식에서의 박 총장의 말대로 학교와 학생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기대한다"며 "우리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워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화인(서양어·포르투갈어 22) 씨는 "꿈에 그리던 학교에 입학하게 돼 행복하다"며 외대 학생이 많은 만큼 그들과 만나 교류하는 활동을 하고 싶단 기대를 드러냈다.

김상연 기자 04sangyeon@hufs.ac.kr

우리학교 총동문회, 청우당 장학금 수여식 진행해

지난 3일 어니컴(주) 사옥에서 청우당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여식엔 △박철원 총동문회 사무총장 △서경호 우리학교 동문장학회 이사장(양인직 제33대 총동문회장(이하 양 회장) △윤경옥 우리학교 대외협력처 부처장 △이소영 우리학교 전략홍보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월 10일 양 회장은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이번 해부터 10년간 매년 1,000만 원을 우리학교 총동문회 산하기구인 동문장학회에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청우당 장학금은 우리학교 학생의 해외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해 신설됐다. 양 회장의 호인 '청우당'으로 명명된 이 장학금은 후배들에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단 양 회장의 뜻에 따라 우리학교 최초로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우리학교 동문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해 1월 26일부터 지난 달 11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했다. 이후 주최 측이 △노정성 △성적소 △구간 △청우당 장학생으로서의 품위 △해외연수 계획서 등을 고

려해 1차에서 2~3배수 선발 후 지난 달 17일에 재단 이사회를 통해 최종 선발했다. 이에 따라 함지훈(아시아·베트남어 19) 씨(이하 함 씨)가 청우당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함 씨는 베트남 해외연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서와 학창 시절부터 글로벌 인재가 되고자 해외 각국을 탐방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온 점이 주최 측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념 촬영 중인 1대 청우당 장학생 함지훈씨와 참석자(출처: 우리학교 홍보실)

장학금 수여식은 △참석자 소개 △인사말 △장학증서 수여 △기념 촬영 △폐회 순으로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0년의 장학금 지급 계약을 통해 적어도 향후 10년간 우리학교 대학평가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청우당 장학금이 후속 장학금을 유지하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장학생인 함 씨에게 1대 청우당 장학생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가 되길 바

란단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함 씨는 "이번 장학금의 규모가 크다 보니 떨리는 마음으로 선발 과정에 임했다"며 "장학생으로 선발돼 다음 해에 베트남 어학연수를 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며 외국의 문화를 접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단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우리학교 동문장학회는 1989년에 우리학교 재학생 및 동문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우리학교 동문장학회에선 기부자의 요청금액에 맞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청우당 장학금은 매년 1월 중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우크라이나어과, 우크라이나 지지 SNS 캠페인 진행해

지난 달 25일부터 우리학교 동유럽대학 우크라이나어과 학생회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지지 릴레이 포스터 게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 란 문구를 포함한 해시태그를 달거나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상징 또는 그림을 제작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캠페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고 현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윤입기(동유럽·우크어 21) 우크라이나어과 학생회 홍보부장(이하 윤 씨)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약 120명 가까이 캠페인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어과와 뜻을 함께할 것을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한 정지영(윤인·21) 씨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보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우크라이나와 비슷하다고 느껴 동질감이 느껴졌다"며 "캠페인을 통해 단순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 전쟁의 부정적인 측면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어과는 SNS 릴레이 외에도 집회나 토론회 같은 다양한 우크라이나 지지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6

일 평화문 일대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7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포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특별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토론회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함의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홍석우 우리학교 우크라이나어과 학과장이 사회자로 나섰으며 △김신규 동유럽 발칸연구소 선임연구원 △박노벽 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대사 △서원희 국방시설본부 사무관 △올레나 쉬겔 우리학교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지리했다. 특히 드미트로 포도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기초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필요함을 전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어과는 다음 달 27일부터 5월 3일까지 명동성당 1888 갤러리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윤 씨는 "우크라이나어과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우크라이나를 도울 것이다"며 우크라이나 지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정기 콜로키움 개최해

지난 달 28일 우리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에서 진행한 정기 콜로키움이 우리학교 교수 회관 2층 강연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콜로키움은 '통일 문화의 주도적 확립과 선전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이하 주 교수)가 해당 강연의 연사를 맡았다. 주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주변 국가와의 소통 △통일 접근 방식의 변화 △통일 환경 조성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러시아-미국-중국 간의 심화된 갈등을 언급하며 "여러 국가가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추후 어떤 소통을 해야 할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젊은 세대가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선전할 때 문제점을 제시했다. 과거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논리와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 교수는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론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 문화의 개념을 설정하고 주변국에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쪽 문화의 우월주의를 자제하고 양쪽 문화의 우수성을 살리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연 후엔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모색 방안과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지난 2020년 5월 우리학교 HK+ 국가전략사업단은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 허브의 구축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통일에 대비한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통일과 그 이후를 준비하던 목표로 △동아시아 △러시아 △한반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미나와 포럼 등의 학술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인문학센터 '플레상스(tolerance)'를 운영해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상연 기자 04sangyeon@hufs.ac.kr

2022년 정기시험 안내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1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17 ~ 02.23	03.20	04.08	04.22
2회	04.28 ~ 05.04	05.29	06.17	07.01
3회	08.04 ~ 08.10	09.04	09.23	10.07
4회	10.06 ~ 10.12	11.06	11.25	12.09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평가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5. 응시료 : 듣기·읽기 42,000원, 말하기 70,000원, 쓰기 70,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수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성적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범람하는 중고거래 속 만연해진 위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해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서도

장터게시판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이용 현황△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인식 및 피해 사례△피해 발생 시 대처 및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급증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지난해 2월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회사 '모바일인덱스'의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체제 기준 △당근마켓△번개장터△옥션 중고장터△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모바일 앱 사용자 수는 2020년 1월 약 488만 명에서 같은 해 10월 910만여 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 이유엔 △간편한 거래 방식△코로나19의 확산△환경 보호 및 윤리적 소비에 관한 관심 상승 등이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이 지속돼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난해 8월 9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서 7년간 5,600여 명을 상대로 50억 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들은 플랫폼의 인증 절차가 간단하던 허점을 이용해 위조한 △명함△사업자등록증△영수증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대금을 빼돌리는 사기 범죄를 벌였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해 이에 따른 금융 범죄가 손쉽게 발생할 수 있어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 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2014년 총 4만 5,877건에서 2020년 12만 3,168건으로 증가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피해에 중도 거래 파기도 존재한다. 이용자의 변심으로 거래가 성사 직전에 취소되거나 거래 도중 변경되는 것을 뜻한다. 조연우(응인·21) 씨는 "에타 장터게시판을 통해 직접 만났던 판매자가 약속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가지고 거래를 제안했다"며 "원하지 않는 거래를 요구해 불쾌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거래 시 성적·유혹적 목적 등 불온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다. 광혜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최근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을 불러들여 금품 갈취 및 성적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인식과 피해 사례

합리적·환경적 소비 등을 이유로 대학생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의 대표적인 예로 △당근마켓△번개장터△에타 등이 있다. 허유진(아시아·마인어 21) 씨는 "전공 교재 가격이 부담스러워 에타 내 장터게시판을 이용한다"며 "에타 이용자는 우리학교 재학생이란 사실이 인증돼 신뢰가 간다"고 답했다. 하지만 에타 이용자의 학교 인증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지난 2020년 10월 한 시민이 10여 개의 대학교 에타 계정을 도용해 약 1억여 원 규모의 사기 거래를 진행한 사건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건을 총괄했던 하남

경찰서는 "에타는 확실한 정보 인증 없이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거래자를 신뢰하기 어렵다"란 입장을 밝혔다.

외대학보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는 '△당근마켓△번개장터△에타 장터게시판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플랫폼 사용 경험자 중 64%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피해의 내용으로 △거래 물품 불량 등의 물품 사기(35%)△거짓 계좌 사용 및 비용 미이체 등의 금액 사기(25%)△중도 거래 파기(20%)△거래 목적 이외의 성적·유혹적 목적 등 불온한 목적을 가진 접근(20%) 순으로 응답했다. 김성아(아시아·아랍어 22) 씨는 "지난 2월 에타 장터게시판을 통해 교양 과목 교재를 구매했다"며 "비대면으로 거래 받은 책은 게시판을 있던 사진과 달리 매우 더럽고 필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60%가 이를 '방치 혹은 묵과'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경찰서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가 50%를 차지했다. 김효정(중국·중외통 21) 씨는 "중고거래로 피해가 발생해도 선뜻 신고하기 힘들다"며 "소액결제가 많은 중고거래 특성상 신고해도 신속한 수사가 이뤄진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외에 '피해가 크지 않아 방치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가 50%를 차지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7%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40%는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경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장점과 더불어 플랫폼 이용자의 신뢰도 부족 문제점이 부각된다는 뜻이다. 조연우(경상·GBT 20)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거래할 수 있지만 앱을 통해 거래자와 소통하다 보니 거래자와의 신뢰가 깊지 않다"고 답했다. 이외에 '환경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와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가 각각 13.3%와 10%를 차지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란 질문에 플랫폼 이용자의 확실한 정보 인증 절차 마련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가해자 엄벌 등의 강력한 법안 마련이 뒤따랐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플랫폼 관련 법안 강화와 인증 절차 마련 등 사회적인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

◆중고거래 플랫폼 피해에 대한 조치 및 예방

최근 급증한 중고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근마켓△에타 장터게시판△중고나라△번개장터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결제 중 나타나는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번개장터와 중고나라는 자체 결제 환경인 '번개장터 페이'와 '중고페이'를 구축했다. 당근마

켓은 주기적으로 안내문을 통해 중고거래 범죄 단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에타는 중고거래 범죄 근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취한 조치는 없지만 피해를 입은 시 해당 계정을 신고할 수 있어 최소 1개월간 계정 정지가 가능하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중고거래 플랫폼 범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법률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이번 해 우리나라 경찰청은 '사이버갑'이란 경찰청 앱을 통해 플랫폼 내 사기 범죄 피신고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사기 경력이 조회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를 담당하는 동대문구 경찰청에선 "최근엔 온라인 신고 접수를 간편화하고 사이버팀을 중심으로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 중이다"고 밝혔다. 글로벌캠퍼스를 담당하는 용인 동부경찰서에선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시 반드시 거래 이용자의 계좌번호와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재하다면 수사 시 상당한 어려움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 시 스마트폰 캡처 등을 이용해 거래자와의 교류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중고거래 플랫폼과 관련해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선 중고거래 플랫폼을 '전자 개인 거래 중개사업자'로 정의했다. 이전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해도 플랫폼의 책임이 없었으나 플랫폼도 범죄의 규모에 따라 일정 정도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금융과 관련된 법안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사이버 금융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 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 이와 달리 △미국△영국△호주 등에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기는 사이버 금융 범죄에 포함된다.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 문제는 빠른 피해금 회수와 계좌 긴급정지 등의 강력 절차가 시행되는 것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에 앞서 예방적 차원의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거래 범죄와 관련된 안내문을 읽도록 하는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학교에서도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이란 교양 과목을 통해 인터넷 사기 및 예방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제도적 해결책과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의한 피해 해결을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 4. 25(월) ~ 4. 29(금)	2022. 5. 30(월) ~ 6. 3(금)
면접전형	2022. 5. 14(토) 10:00	2022. 6. 18(토) 10:00
합격자 발표	2022. 5. 27(금) 16:00 예정	2022. 7. 1(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2. 5. 30(월) ~ 6. 3(금) 예정	2022. 7. 4(월) ~ 8(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유아교육 수학교육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영양교육 독서논술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혁신미래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나. 외국대학, 특별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다.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 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 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동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부 전공의 경우 온라인(비대면)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불합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학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페이지 : gse.hufs.ac.kr
- 이메일 : hufsgs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2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04.25(월) ~ 05.06(금)	2022.05.30(월) ~ 06.10(금)
고사장 발표	05.12(목) 15:00	06.16(목) 15:00
면접전형	05.14(토) 10:00 예정	06.1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26(목) 15:00	06.30(목) 15:00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충족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초·중·고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3.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4.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작성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 가능)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국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재정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성적증명서
1) 자격증 : 초·중·고교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합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초기 졸업 가능)학업(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생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국인),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수여(번역사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청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새롭게 대두된 학제 개편, 우리 학교의 미래 모습은?

지난달 14일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우리학교 제10차 이사회 회의에서 공약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 공개됐다. 회의록엔 융합대학 확대와 학과 재편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 총장은 지난달 22일과 23일에 열린 총장 취임식과 총동문회 신년인사회에서도 위 계획을 강조하며 공약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대두된 학제 개편 및 교육과정 계획△학생사회의 반응△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대두된 학제 개편 및 교육과정 계획

지난해 12월 16일에 진행된 우리학교 제10차 이사회 회의의 내용이 지난 달 14일 우리학교 총장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회의에선 △교원 임용△규정 개정△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리모델링 등의 안건 논의와 더불어 박 총장과 당시 총장 후보였던 김유경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의 정견 발표가 진행됐다.

박 총장은 정견 발표에서 재정 마련과 대학원 신입생 충원을 제고 등의 공약과 함께 학사 제도(이하 학제) 개편에 관한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융합대학 확대와 학과 재편 두 가지였다. 융합대학 확대는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소양과 첨단 과학기술을 융합한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융합학과 신설을 위해 박 총장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 AI융합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더불어 영미문학·문화학과와 ELLT학과에서 각 20명, EICC학과에서 10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인원 조정 방안까지 언급했다.

학과 재편은 유사중복학과 통합과 전략언어 융합대학 재편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뉘었다. 현재 설캠과 글캠엔 △독일어△영어△이탈리아어△일본어△중국어 등 총 11개의 외국어학과가 중복돼 존재한다. 박 총장은 유사중복학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과 조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유사중복학과 외의 외국어계열 학과를 조정하는 전략언어융합대학 재편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우리학교의 학과를 조정·축소해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어 박 총장의 정견 발표에 대한 이사회 회의의 질의가 이어졌다. 융합대학 확대와 학과 재편 계획을 실행할 때 교수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던 우려에 대해선 학제 개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총장은 “학교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원칙을 고수한다면 교수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어학계열 학과를 학제 개편 계획의 중심으로 뒤 비어학계열 학과 교수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박 총장은 지난 2018년 영어학과 커리큘럼에 공학적 지식을 접목한 ELLT학과를 출범 시킨 경험을 내세웠다. 박 총장은 “대부분의 교수가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정체성과 유망 분야를 올바르게 제시한다면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학생사회의 반응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된 뒤 학제 개편 소식을 접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지난달 18일 설캠 총학생회 ‘이룸’ (이하 설캠 총학)은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정리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식 계정에 공개했다. 내용 정리와 더불어 학제 개편 및 정원 조정 학과 선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단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 학생의 의사 반영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우리학교에 비판적인 여론이 존재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이사회 회의 질문에 박 총장은 “학교 구성원이 학내 문제를 외부에 공개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설캠 총학은 “해당 발언에 유감을 표현

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제 개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제 개편이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달 15일 글캠 총학생회 ‘외대의 봄’ 또한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했다. 더불어 TF팀을 구성해 회의에서 거론된 학제 개편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학생들도 학제 개편 계획에 관해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AI융합대학 신설에 대해 엄승민(일본·인문 18) 씨는 “AI융합대학이 설립되면 우리학교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언어 전공만으론 취업이 어렵단 인식이 있는데 신설되는 대학은 취업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기존 공과대학 운영이 미흡한 가운데 AI융합대학이 신설되는 걸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했다. 글캠 공과대학에서 이중전공 수업을 듣는 A 씨는 “기존 공과대학에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학교에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학과를 개설하거나 기존 학과를 통합하려 시도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학교엔 언어와 공학을 결합해 언어공학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설된 융합전공 ‘언어와 공학’이 존재했으나 지난해 1학기에 폐지됐다. 지난해 2학기부터 AI융합전공을 신설해 이를 ‘Software&AI 트랙’과 기존 언어와 공학 전공에 해당하는 ‘Language&AI’ 트랙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해당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Language&AI 트랙을 전공하고 있는 신수연(인문·언어인지 19) 씨(이하 신 씨)는 “급히 개설된 전공이다 보니 교과 과정이 세밀하지 않다”며 전공 수업만으론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개설되는 강의의 수가 매우 적단 고충도 존재했다. 실제로 이번 학기 Language&AI 트랙에 개설된 전공 강의 수는 3개뿐이다. 신 씨는 “교수님 중에는 통계학과 수업을 병행해 들으라는 분도 계셨다”며 적은 강의 수에 불만을 토로했다.

학생들의 의견 반영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0년 융합인재대학(이하 융인대) 설립에 관한 논의가 오갈 당시 글캠 제 41대 총학생회 ‘The 본’은 우리학교 측에 학생대표자외도 이에 관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0년 5월 8일 학교 측은 교무위원회와 전체교수협의회 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같은 날 융인대 설립에 반대하는 60인이 설캠 도서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다수의 학생은 이와 같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논의 진행에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비판을 인지한 김윤수 당시 우리학교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 담당자는 “후속 조치는 최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 총장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15일이 지난 현재, 융합대학 확대와 학과 재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구원회 우리학교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 담당자는 “학과장과 논의하겠다는 예고는 있었으나 기획조정처 측에 하달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총장이 총장 취임식과 총동문회 신년인사회에서 임기 내에 실천하고자 하는 공약으로 학제 개편을 특히 강조한 만큼 해당 계획의 귀추가 주목된다. 내실 있고 학과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제 개편이 되도록 구체적 계획 수립 과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 어학계열 강의가 주로 진행되는 인문과학관

대한 배려나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과대학 운영도 부족한 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AI융합대학이 추가로 설립될 경우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유사중복학과 통합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 B 씨는 유사 학과가 통합되면 중복 투자가 줄어 우리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을 밝혔다. 이어 “낭비를 줄이고 유망한 학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복학과 재편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단 시선도 존재했다. 박주영(아시아·태국어 21) 씨는 유사중복학과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 대상이 되는 학생과 교원의 의견 반영 여부가 중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행정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소외되는 편입생, 모두가 융화된 학교생활을 위해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여유시간△서울권 대학 선호현상△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 변경 등의 요소로 인해 편입에 도전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학교 내 전출 인원이 늘어 우리학교를 포함한 상위 11개 대학의 편입생 모집 인원도 상승했다. 매년 편입생의

수는 증가하지만 재학생과의 정보 격차와 학교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불가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편입생 증가 현황△편입생들이 겪는 어려움△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편입생 증가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자 여유시간을 활용해 편입에 도전하는 학생이 증가했다. 전출 인원이 늘자 주요 상위 11개 대학에서도 편입 모집 인원이 늘어 기회가 많아진 것도 편입생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번 해 상위 11개 대학의 일반 편입학 총 모집 인원은 1,743명으로 지난해 대비 21.4%가 증가했다. 우리학교도 편입 모집 인원을 대폭 늘렸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편입생 모집 인원의 경우 2020년 87명에서 이번 해 126명으로 확대됐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 2020년 243명에서 이번 해 31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학교로 편입한 김규린(통번역·일본어 19) 씨도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학교에 가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며 “충분한 공부 시간을 확보해 편입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적성에 맞는 학과를 고민하는 학생이 증가하자 편입에 도전하는 학생 수도 늘었다. 진정필(동유럽·폴란드어 19) 씨(이하 진 씨)는 “경영학과에서 우리학교 폴란드어과로 편입하게 됐다”며 “실용적인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 편입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또한 학벌에 대한 아쉬움과 서울권 대학의 선호도 입시에 재도전하는 이들도 늘었다. 김영편입학원 관계자 A 씨는 “과거부터 학생의 서울권 대학 선호도는 높았지만 최근 들어 더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대학보가 이번 달 6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간 우리학교 편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편입을 하게 된 계기’로 △ ‘학벌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65.1%) △ ‘전직 대학에서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17.4%) △ ‘코로나19로 편입 시험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확보돼서’(17.4%) 순으로 응답했다. 이상영(서양어·노어 19) 씨(이하 이 씨)는 “지방보다 서울권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큰 경험과 배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우리 학교에 편입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편입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은 적은 상황이다. 편입생은 매년 3월 신입생과 함께 입학하지만 편입생을 위한 입학 행사와 학교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씨는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학교 홈페이지△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진 씨 또한 “학교에 아는 동기와 선배가 없어 주로 에타를 이용해 학교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편입생이 겪는 어려움

외대학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편입생은 ‘편입생이 겪는 어려움’으로 ‘재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 부족’(33.3%)을 꼽았다. ‘동아리·학회·학과 행사 및 프로그램 등 학교생활 속 기존 재학생과의 적응 문제 및 참여 불가’(29.2%)와 ‘교환학생제도’,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등 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차별을 경험’(16.7%) 등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 대부분의 학과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하 단톡방)을 통해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오리엔테이션(이하 오티)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돼 편입생의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오티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과가 존재했다. 편입생은 우리학교에서 진행 중인 행사 안내와 학과 내 선·후배 연결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워 학교생활의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 GBT학부의 경우 선·후배 연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편입생은 멘토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전공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학과 행사가 중단된 상황 속에서 재학생과 편입생의 정보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진 씨는 “신입생은 ‘선·후배 연결 프로그램’이나 ‘신입생세미나’와 같은 수업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진행해 학과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풀란드어과의 경우 편입생에게 이런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입생과 동등하게 학교 적응을 위한 여러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아리와 학교 활동 지원 시에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설캠 중앙동아리 ‘애드라인’의 경우 매년 부원 모집 대상이 22학번의 신입생으로 제한돼 실질적 3학년 신분인 편입생은 지원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일부 동아리에선 가입 요건이 1·2학년으로 제한돼 신청조차 할 수 없던 사실이 아쉽다”며 제한 사항이 사라져 다양한 동아리에 참여해보고 싶단 아쉬움을 비쳤다. 학과 학생회 참여 현황도 비슷한 상황이다. 노어과의 경우 학생회 모집 대상은 21학번과 22학번으로 제한한다. 이에 대해 김여민 노어과 학생회장은 “교학년의 경우 해외연수와 자격증 시험 준비로 지원 인원이 적어 지원 자격을 저학년으로 명시했던 것이다”며 “3·4학년도 희망할 시 학생회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어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게시물엔 지원 기준이 21학번과 22학번으로 명시돼 노어과 학생들은 교학년의 지원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고 및 수직 장학생 선발 시에 본전공생과 동등한 자격으로 선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대부분의 과는 성적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고 답했다. 그러나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와 스칸디나비아어과는 조고 선발 시 본전공생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과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학생이 필요하던 이유에서다. 홍서연(아시아·마인어 21) 씨는 “선발 기준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본전공생을 우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교환학생제도와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모집 자격에서도 편입생에게 불리한 지원 조건이 존재한다. 우리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4학년 1학기까지만 파견이 가능해 편입생의 경우 2학기 이하 재학 혹은 휴학생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18학번 편입생의 경우 코로나19로 해외연수 길이 막혀 휴학하거나 추가 학기를 다니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 △네덜란드어과△이란어과△태국어과△폴란드어과△프랑스어학부 등은 편입생과 본전공생을 위해 온라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대부분의 과는 이조차 없는 상황이다.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편입생을 위해 보완됐으면 하는 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편입생들은 △학과 선배 연결 프로그램 및 지도교수와의 진로 상담(33.3%)△동등한 학교 프로그램 지원 자격 부여(20.8%)△입학처 및 양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양캠 총학)가 진행하는 편입생 대상 사전 교육(16.7%)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충분한 전공필수과목 여석과 휴학기간 연장이 필요한 의견이 있었다.

우리학교의 경우 학사종합지원센터가 학교 홈페이지에 편입생 수강편람을 제공해 학교생활에 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까지 편입생 대상 학교생활 안내 책자를 활용해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발생 후 중단됐다. 이에 김 씨는 “지난해 우리학교 편입 후 학교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며 “편입생만을 위한 입학 행사가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캠 총학은 편입생만을 위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은 없다고 전했다. 설캠 총학은 “공약 정책 중 하나인 대학생활·캠퍼스 안내 책자를 통해 편입생에게도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글캠 총학은 편입생도 신입생과 함께 새내기배움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을 전하며 “소외된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밝혔다.

타 학교의 경우 편입생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아주대 학교(이하 아주대)는 편입생을 기존의 재학생과 융화시키고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진로 설정 캠프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편입생이 캠프에 참가하며 △대학생활 방향설정△대인관계 의사소통△자아 성향과 강점분석 등의 활동을 통해 비교적 진로 설정이 늦은 편입생에게 진로 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틀간 온라인 진로 설정 캠프를 진행했다. 우리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 관계자 A 씨는 “아주대의 진로 설정 캠프와 같이 편입생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진행 예정이 없다”며 “하지만 편입생과 재학생을 나누지 않고 모두 참여가 가능한 공평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모두가 융화된 학교생활을 위해 재학생과 편입생의 교류 방안과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중국, 짧지만 충만했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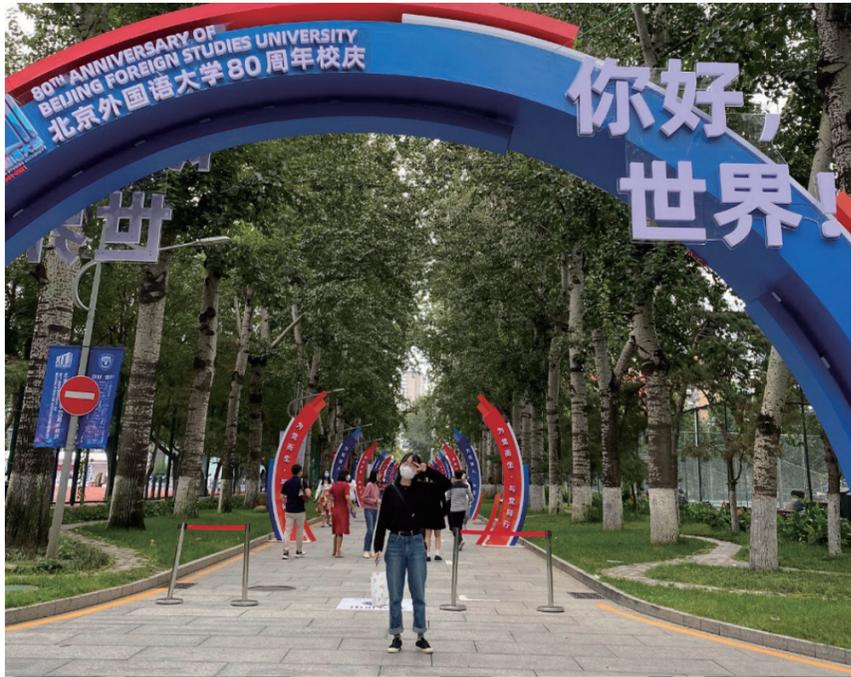
지난해 8월부터 이번 해 1월까지 총 6개월간 '7+1파견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베이징의 국어대학교(北京外国语大学)에서 공부했다. 이중 전공이 중국어통번역학과이기에 중국어 실력을 키우고 싶어 유학을 결심했다. 또한 언어 학습 과정에서 익힌 중국의 문화를 현지에서 직접 경험하고 싶었다.

베이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3+1자가 격리 정책'을 실시했다. 3주는 정부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다른 한 주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격리를 진행했다. 격리 동안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힘들었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장과 볶은 김치가 큰 도움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 학생이 많아 모든 강의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기숙사에만 앉아 수업을 듣는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교수님이 중국어를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워 유학 생활 동안 북한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학교 도서관의 '조선어' 책장엔 북한의 옛 책들이 있다. 또한 외국인 기숙사에서 북한 학생을 직접 목격했다. 귀에 박히는 익숙한 단어에 반갑고 신기한 느낌이 들었다. 한국에선 쉽게 접할 수 없는 경험을 해본 것 같아 좋았다.

중국에 있는 동안 △난징△톈진△항저우 여행을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주변 한국인이나 중국인에게 알리는 것을 추천한다.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힘들기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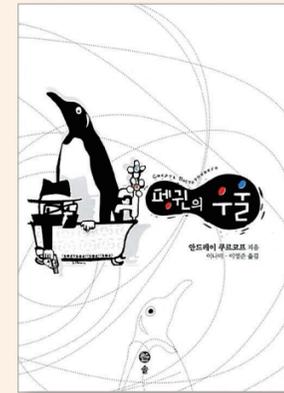
짧은 기간의 중국 유학이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며 다양하고 값진 경험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유학의 목표였던 중국어 실력 향상을 이루게 돼 앞으로 꾸준히 중국어를 학습할 동력을 얻었다. 중국에서의 6개월은 내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다.

황민정(인문·사학 18)

우크라이나

<펭귄의 우울>

- 지워지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우울 -



1991년 12월 26일 소비에트 연방(이하 소련)이 해체됐다. 이에 같은 연방에 속해 있던 우크라이나 역시 소련 해체 이후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섰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난 뒤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 속에서 살아야 했다. 갑작스러운 체제의 변화로 인해 스키업스군대스마피아스정치 등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서 부정부패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소설 '펭귄의 우울'은 혼란이 가득하던 1995년 겨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배경으로 쓰였다. 작가 안드레이 쿠르코프는 1961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로 이주한 뒤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소설 속에 소련 해체 이후 혼란기였던 우크라이나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주인공 '빅토르'는 황제펭귄 미샤와 함께 사는 무명 소설가다. 자신의 소설을 받아줄 신문사를 찾던 그는 '수도뉴스' 신문에 들러 본인의 작품을 투고한다. 그의 글에 감명받은 편집장은 그에게 소설이 아닌 다른 종류의 기고문 집필을 제안한다. 바로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비는 글인 조문을 쓰는 일이다. 그러나 편집장은 평범한 조문이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때를 대비한 조문을 미리 써달라고 요청한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던 빅토르는 그 일을 수락한다. 그러나 조문에 쓰인 사람들이 차례로 죽어가지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다. 이야기가 진행되며 조문 사건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난다.

단순한 미스터리 이야기로 남을 수도 있었던 이 소설에 상징성을 부여한 건 펭귄 미샤의 존재다. 그는 빅토르의 심리를 대변하는 상징물로서 기능한다. 펭귄 미샤는 자주 우울한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남극보다 더운 우크라이나의 기후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에 빅토르는 펭귄 미샤를 남극에 되돌려 보내줄 계획을 세운다. 이 소설에서 남극은 평화로운 삶을 은유한다.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해지는 펭귄 미샤의 모습은 평화로운 삶을 원하나 혼란스러운 우크라이나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하는 빅토르의 모습과 닮았다.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는 자유를 되찾은 행복한 나라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소련 해체 직후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스캔들로 우크라이나의 사회가 들쭉날쭉했다. 몇십 년이 지나도록 러시아의 간섭은 끊이지 않았고 지난달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에 이르렀다. 전쟁의 경과가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 책을 읽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사회의 우울함에 공감해보기 바란다.

장래산 기자 03raesan@hufs.ac.kr



다녀왔다. 편리한 여행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하자면 중국에선 도시마다 사용하는 지하철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다르다. 따라서 여행을 가기 전 어떤 대중교통 앱을 이용해야 할지 알아봐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결제 수단인 '알리페이' 사용이 가능하다. 숙소 예약과 비행기 예약을 위해선 '메이투안(meituan, 美团)'이란 앱을 이용하면 된다. 이 외에도 맛집 및 여행지 검색을 위한 '시아오홍슈(小红书)' 앱과 길 찾기를 위한 '고덕지도(gaodeditu, 高德地图)' 앱 등은 편리한 중국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The Unique & The Best

② HUFs makes me special : 1+1? 2+2! 7+1?!



▲외대사-우리학교 제17기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 인턴 발대식

우리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어 전문 고등교육기관이란 명성에 걸맞게 세계 98개국 872개의 대학 및 기관과 교류 협정을 맺었다. 이에 학생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줌으로써 캠퍼스의 국제화를 실현하

고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와 카이로대학교의 교류협정을 통해 교육 교류 이상의 효과를 냈다. 우리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시스템 교류만이 아닌 국가와 국가간의 새로운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학교-뉴욕주립대간 복수학위협정 협약식

이어 우리학교는 국내 최초로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했다. 해당 협정은 2001년 6월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University of Delaware)와 체결한 것으로 4년 내 우리학교와 델라웨어대학교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복수학위제도(2+2제도)다. 우리학교에서 정해진 과정의 학점을 이수한 학생이 델라웨어대학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할 경우 두 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델라웨어대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와 국립대만사범대학교(國立臺灣師範大學)는 우리학교와 복수학위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추후 세계화 시대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국제적 한국인 양성을 위해 더 많은 세계 주요 대학과 복수학위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우리학교의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은 국내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그 특별함이 더욱 돋보인다. 지난 2010년 조 선일보가 실시한 아시아 대학평가 국제화 부문에서 우리



▲이집트 카이로대학교와 문화교류협정 체결

학교는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교환학생 숫자도 국내 1위를 기록하며 국제화에 최적화된 대학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우리학교의 활발한 학생교류는 국제지역학 특성화 대학이란 입지를 굳건히 다지는 데 기여했다. 7+1 파견학생제도 는 8학기의 대학 재학기간 중 최소 한 학기를 외국 대학에서 보내며 세계를 경험하고 국제적 시각을 넓히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1년에 두 번, 연간 약 50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해 해외의 우수 대학에 파견하고 다양한 전형 유형을 통해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환학생△어학연수△스자비유학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지에서 영어 또는 전공 언어의 능력을 향상하고 타문화를 배울 수도 도록 많은 학생을 격려하고 있다.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청년지원정책, 청년 삶의 버팀목이 되기까지

지난달 21일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인 청년 희망적금이 출시됐다. 연 10%대의 높은 금리로 출시 직후부터 신청 인원이 폭주해 은행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마비되고 오프라인 창구는 북새통을 이뤘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지원정책은 △교육·학자금지원△일자리

지원△소득 지원△주거 지원 등의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의 인식을 살펴보고 앞으로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청년지원정책

우리나라의 청년지원정책은 고교 진학에서부터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는 전 단계에 걸쳐 있다. 청년지원 정책의 분야는 △교육·학자금지원△일자리 지원△소득 지원△주거 지원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8월 정부는 청년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인 '청년기본법'을 제정한 후 청년 정책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며 본격적인 청년 지원을 시작했다. 최근에 화제가 된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으로 200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과 연령을 자격요건으로 두고 높은 금리를 제공해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매달 2년간 저축하면 약 5%의 이자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저축장려금으로 4%가 추가돼 사실상 10%대 저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의 비과세 혜택과 우대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상품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최대 10년간 1.5%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소득증빙 및 자격요건 충족에 불편함을 겪는 지원자가 늘어나며 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소득 증빙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취업 준비생은 소득 증빙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약 소득 증빙이 되더라도 가입 기준이 까다롭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인 월 273만 원에 비해 가입 소득 상한선이 월 264만 원으로 낮게 형성돼있다. 이에 대학생이 자주 사용하는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청년의 현실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반응이 부족하단 지적이 뒤따랐다.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지원정책의 참여율 조사'에 따르면△취업성공패키지 사업 (1.5%)△청년고용대책 사업 (0.3%)△청년지원 사업 (0.3%) 순의 참여율을 보였다. 서울시 청년지원센터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원 절차' 다음으로 '자격요건의 까다로움'이 불편함으로 지적됐다. 소득분위 만족 및 증빙 절차가 까다롭고 다양한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세대주 입증 주민등록 등본△무주택 확인서△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한 다수의 증명서가 준비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청년지원정책 인식조사

외대학보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청년지원정책 관심도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청년지원정책을 신청해본 적이 있나'란 질문에 응답자 중 73.3%가 신청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

원한 정책에 대해선 △학자금 정책△생활복지 정책△현금성지원 정책 순으로 높은 응답을 얻었다.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최하은(사회·행정 21) 씨는 "학자금 정책인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며 등록금 감면이 체감상 가장 크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란 이유로 해당 정책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0%의 학생이 '만족하지 못한다'를 선택했다. 만족하지 못한 이유론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정책 홍보가 부족하단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박준우 한국청년회의소 부산지구회장은 "취업·창업에서 청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은데 이를 홍보하는 수단이 부족하다"며 활발한 홍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엔 △자격요건 충족의 어려움△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지원 대상자인지 모름 △지원자 쏠림으로 인한 신청과정 지체 순으로 높은 응답을 얻었다. 이번 해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한 우리학교 학생 손지혜(응인·21) 씨는 소득증빙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의 총소득이 가입 기준인 3,600만원 이하였지만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0년도 소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20년엔 소득이 없어 증빙이 불가하고 이번 해 7월에 나오는 2021년의 소득 확정 신청자가 폭증해 사업재개가 이뤄질진 미지수다. 그는 "가입요건이 까다롭고 제한 사항이 많아 정작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한편 신청 과정 자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상품 개시 첫 주부터 지원자가 몰려 신청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KB국민은행 모바일뱅킹 앱인 KB스타뱅킹은 과도한 접속량으로 인해 이날 오전 9시 30분 이후 로그인이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했다. 정나윤(사회·미디어 19) 씨는 "지원자 쏠림 현상으로 한참 뒤에야 적금 신청이 가능했다"며 신청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했다.

청년지원정책의 보완점을 묻는 질문에 관련해선 가장 많은 답변으로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 인원 확대'와 '맞춤형 홍보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청년지원정책 확대 희망 분야는 △'생활·복지 정책'(36.7%)△'학자금정책'(26.7%)△'주거지원 정책'(13.3%) 순으로 나타났다. 여찬우(서양어·포르투갈어 21) 씨는 "정보의 부족으로 그동안 여러 청년지원정책 중 일부만 이용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정부는 이번 해 예산안에서 청년 사업으로 총 23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정책의 여러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해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며 예비비 혹은 추가예산을 활용한 가입 인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청년층의 불만을 인식해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청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청년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자체 청년 정책관계자는 "정부지원 사업 진행 시 자체 사업 대상자의 기준을 적극 홍보해 혼선을 방지하겠다"며 정부와 각 자치구의 연계를 통해 청년 지원사업 홍보 및 이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오겠다 포부를 밝혔다. 소득 요건 완화 및 자산 기준 책정에 관해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가입자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단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형평성 있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럽연합(EU)은 일찍이 2012년부터 청년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년보장제는 청년이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후 4개월 이내에 △견습△일자리△지속적 교육△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청년보장제도의 정책대상은 25세 미만 **니트족이다. 유럽연합이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니트족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 상태의 니트족과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상태의 니트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5세 미만의 니트족 청년을 청년보장제도의 정책대상으로 할 것을 권고했으나 오히려 13개 유럽연합 회원국에선 30세 미만의 청년으로 정책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들의 조언에서 실효적 기준을 내세운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의 자립을 지원해준다는 좋은 취지가 가려지지 않도록 제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연 2,000만원 납입한도 안에서 △예·적금 △파생결합증권△펀드와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전문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2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2.04.15(금) ~ 05.02(월)	2022.05.20(금) ~ 06.03(금)
고사장 발표	2022.05.11(수) 15:00	2022.06.15(수) 15:00
면접전형	2022.05.14(토) 10:00 예정	2022.06.1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2.05.27(금) 15:00	2022.07.01(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2.05.30(월) ~ 06.03(금)	2022.07.04(월) ~ 07.08(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년 중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공공감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 라. 문화언어언어학과(문화언어언어)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 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우웨이어플라이 www.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제출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됨)
 - 신입생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졸업학점의 50% 까지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정치행정전문대학원)
TEL. 02-2173-2428, 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모집

1. 2022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2.04.18(월) ~ 05.02(월)	2022.05.20(금) ~ 06.03(금)
고사장 발표	2022.05.11(수) 15:00	2022.06.15(수) 15:00
면접전형	2022.05.14(토) 10:00 예정	2022.06.1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2.05.26(목) 15:00	2022.06.30(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2.05.30(월) ~ 06.03(금)	2022.07.04(월) ~ 07.08(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년 중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제출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 다. 현지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 바. 복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lkirk College)
- 아. 추가학점 이수트랙신설
(논문·졸업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교학과
TEL. 02-2173-3521~2FAX. 02-217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진화하는 현대 전쟁, 혼란에 빠진 국제사회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거짓 뉴스와 선전△경제 제재△사이버 전략을 사용한 '하이브리드(Hybrid) 전쟁' 이 벌어졌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혼합해 전쟁 상대국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전쟁은 물리적·인적 피해

와 더불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전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이브리드 전쟁의 전개와 영향△피해 상황△하이브리드 전쟁의 대비책에 대해 알아보자.

◆다양화된 전쟁 전략

현대 전쟁의 초기엔 간첩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전략이 활용됐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동안 진행된 베트남 전쟁에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 수많은 간첩을 파견해 동조자를 포섭하고 각 분야에 간첩을 침투시켜 정부가 권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 때 파견된 간첩은 남베트남 전체 인구의 0.5% 정도였으며 약 5만명 정도가 △민족△인도△평화주의자로 위장한 채 △시민단체△정부의 핵심부△종교단체를 장악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쟁의 방식도 변화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달 24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을 수 있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선 하이브리드 전쟁 수단 중 △거짓 뉴스와 선전△경제 제재△사이버 전략이 활용됐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투기와 전차를 격파하는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해 러시아군의 심리를 자극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국제 IT 의병을 모집하던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 IT에 능숙한 해커들을 모집했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 사이버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외교부 웹사이트를 마비시켜 우크라이나 정부에 혼란을 줬다.

2006년 레바논 침공엔 거짓 뉴스와 선전이 전쟁 수단으로 사용됐다. 2006년 7월 당시 레바논을 점령 중이던 이스라엘을 상대로 무장저항조직인 '헤즈볼라'가 선제공격을 시도하며 전쟁이 시작됐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강력한 화력이나 첨단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헤즈볼라는 전쟁 중 군사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확산시켰다. 대표적으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군인의 통화를 도청해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가짜 시체나 폭격 장면을 연출하는 등 군인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리전을 전개했다.

한편 경제 제재의 전략 또한 현대 전쟁의 방식 중 하나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자 대러 제재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경제 제재 대상엔 90여개 러시아 금융기관이 올랐으며 푸틴 대통령의 측근과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제재도 추가됐다. 이와 더불어 첨단제품과 부품 수출 통제 방안도 함께 발표돼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전략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SNS를 기반으로 전개된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은 니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두고 지난 2020년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쟁이 벌어졌다. 당시 아제르바이잔군은 아르메니아군에 비해 경제적 여력이 부족했지만 전쟁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SNS에 공개해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들의 전략은 상대적으로 지출이 컸지만 전격적인 드론 전투의 모습을 송출하고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측의 심리를 위축하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 다방면에서 나타나는 피해

변화된 전쟁 이후의 피해는 단순히 물리적 피해를 넘어 △경제적 △물질적△심리적 피해로 광범위해졌다. 거짓 뉴스나 선전의 작전 중 하나인 '가짜 깃발 작전'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 것처럼 조작해 공격의 빌미를 만드는 수법으로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하는 군사 작전을 가리킨다. 이 작전을 통해 거짓 선전의 주동국은 공격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해 전쟁의 명분을 만든다. 제임스 루이스(James Louis) CSIS(Center for Strategic&International Studies) 연구원 겸 기술 전문가는 "거짓 정보가 사람들에게 자주 노출되면 이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생긴다"고 언급하며 거짓 뉴스가 양산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따라가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경제적 보복의 경우 공격국과 피해국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타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와 중요한 경제 협약을 맺는 나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예측된다. 따라서 러시아는 경제적 대가를 치를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 국가들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는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영국은 러시아 신흥재벌 재산의 은닉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러시아 국민의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사이버 전쟁의 경우 쉽고 빠르게 타국가로 뻗어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 예로 2020년 IT 장비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 솔라윈즈(SolarWinds)의 소프트웨어가 해킹을 당한 사례가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삽입된 악성코드는 미국의 여러 기관으로 퍼졌고 △마이크로소프트(MS)△상무부△상무부 산하의 통신정보관리청 △재무부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 공격의 주된 범인은 러시아로 판명됐다. 사이버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글(Google)과 애플(Apple) 같은 해외 기업은 △애플리케이션 내 러시아 국영 언론사(RT) 광고 차단△휴대전화 결제 서비스 중단△SNS 중지 등 특정 국가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스마트폰 같은 미디어 도구 판매를 금지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이버 전쟁의 도구와 장소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사이버 공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하이브리드 전쟁의 대비책

현대전의 양상이 기존 재래전과 사이버공격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양상을 띠면서 사이버공격의 대비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체계의 중심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다. 하지만 활동범위가 공격에 대한 보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돼 △경제△문화△사회△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인터넷 의존성이 높아졌지만 이에 대비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지적도 있다. 이에 지난 3일 국가안보실은 사이버 안보에 관해 향후 10년간 △국제협력 확대△연구개발 투자 확대△보안기술 인증지원△제도적 인프라 구

축에 힘쓸 것이라 밝혔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위협을 감행할 수 있어 위기 이전에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하 나토)는 사이버 협력 강화 방안에 합의해 사이버 공간 방어 구축에 들어갔다. 이미 나토는 2018년부터 러시아를 견제해왔다.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나토장군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군을 비롯한 다른 기관 부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범정부적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비슷하게 영국군은 지난해 DSEI(Defence &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 국방 전시회에서 전쟁 배경이 점점 더 다양해질 것을 예상하고 신기술을 이용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전투 차량 기술을 시연해 △네트워크 개발△드론 테더링△무인 지상차량△무인 항공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줬다. 나토와 영국 모두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군사적 대응책을 모색·발전시킨 것이다.

급변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나라 또한 △군사△사회△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한 대비가 시급해 보인다. 이만중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우리나라도 안보와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공격기술에도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던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만은 안전한단 생각이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www.시사한줄토익.com

정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제20대 대통령 당선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이하 윤 당선인)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최종 48.56%의 득표를 얻어 47.83%의 득표를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보다 약 0.7% 앞섰다. 두 후보의 표차는 247,077표로 이는 역대 대선 1·2위 후보 간 최소 득표 차다. 한편 윤 후보의 승리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게 됐다.

사회 경상북도 울진·강원도 삼척 지역 산불 장기화

지난 4일 오전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시작된 동해안 산불이 장기화되고 있다. 10일 산림청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울진지역 산불 피해 면적은 1만 8,484ha라고 발표했다. 이는 축구장 2만 6,890개와 맞먹는 규모다. 한편 산불 발생 일주일째인 지난 10일 기준 진화율은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산불로 집과 창고 등 455개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경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돌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20년 3만 1,881달러보다 10.3% 증가한 3만 5,168달러로 집계됐다. 이 같은 반등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경기가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국제 미국,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안 발표

지난 8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위해 러시아산 △가스△석탄△원유를 수입 금지한다고 밝혔다. 유럽까지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동참한다면 국제유가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다시 논의된 대통령제 개헌, 앞으로의 방향은?

이번 달 9일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은 현행 대통령제의 크고 작은 부분을 개편 하겠다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내세웠고 윤석열 후보 역시 청와대 개혁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제19대 대선 때도 대통령제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이뤄진 바가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 개편 방향에 대한 여론이 대립 중인 가운데 이재목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스타 국가의 정부 형태△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이재목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Q1. 정부 형태로써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원집 정부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차이는 권력의 분립과 융합에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권력의 분립은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의 선거를 따로 시행해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죠.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개입할 수 없고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반면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하게 연동돼 돌아가는 권력 융합형이에요. 한 번의 의회 선거를 통해 행정부의 내각을 구성하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정부 형태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면 의원집정부제는 그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만큼 혼합했느냐 나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Q1-1. 우리나라 정부는 대통령제로 운영되지만 내각제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각제적 요소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요소는 우리나라가 국무총리제를 채택하고 있던 것입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총리가 없고 부통령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선 대통령이 입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대통령은 오직 입법부를 통과한 법률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각제는 총리를 두고 국무위원이 회의를 하죠. 우리나라의 국회는 행정부 소속인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장관과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모두 내각제적 요소로 입법부가 행정부의 관할에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Q2.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선거 구조'를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며 대통령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통령은 △국세청장△감사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정 권력을 지닌 사람을 임명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기에 사정 권력에 대한 큰 두려움이 없지만 여전히 과도한 임명권이란 비판이 많죠.

Q2-1. 우리나라에서 정치 대립이 극심해지는 원인으로 대통령 선거에서의 1등이 모든 행정 권력을 가지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주로 꼽힙니다. 승자독식 구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거의 승자가 패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이고 대부분의 선거에서 1등이 40% 정도의 득표율을 획득하고 나머지가 60%를 나눠 받아요. 결국 60%의 사람들은 당선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거나 지지를 유보한 사람들이죠. 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이런 구조를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찍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도 존중해야 해요.

두 번째는 결선투표제의 도입입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의 최다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의 득표자가 재투표를 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죠. 투표를 2차까지 진행해야 한단 점이 번거롭지만 결국 한쪽 후보가 과반수의 지지를 얻기에 정당성 논란과 승자와 패자간의 균열이 지금보다 완화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회나 다른 기관에 분배하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된다면 권력 분산이 가능합니다.

Q3.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으로 '4년 중임제 개헌'이 떠올랐습니다.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편해야 한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단임제에서 한번 당선된 대통령은 다시 당선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이 정치적 책임을 물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에 중간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존재합니다.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3년을 추가해 총 8년의 임기를 부여하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반론으로 임기를 3년 더 늘린 것뿐이지 똑같은 책임의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던 여론도 있죠.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을 대통령의 소속당에 묻는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통해 각 정당에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더 적절하단 의견이 있습니다.

Q4.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로 옮긴단 '탈 청와대' 공약도 대두됐습니다. 이런 공약이 실현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우려점은 무엇인가요?

이 공약의 취지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김으로써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많은 공무원을 만나고 시민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고립된 청와대의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대통령이 소통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청와대가 고립됐기에 경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게 되면 광화문 청사 인근에 지금보다 더 많은 경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는 길을 만들어 교통 혼란이 예상되죠.

Q5.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미국의 대통령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미국식 대통령제엔 존재하지 않는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과 국무위원 겸직 가능△양당제적 성격을 지닌 다당제△입법부와 행정부의 혼합△총리 존재 △5년 단임제 등을 미국의 대통령제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Q6. 유럽의 대표적 선진국인 독일과 영국은 의원 내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운영하는 의원 내각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미국이 대통령제의 순수원형이라고 하면 영국은 의원내각제의 순수원형입니다. 영국은 독일과 다르게 왕이 있고 군주제와 의원내각제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입헌군주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독일의 행정부 수반은 총리지만 국가수반은 간접 선출로 당선되는 대통령이죠. 독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내각제 국가는 다당제로 구성됩니다.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특이하게도 영국은 내각제를 운영하는 국가이지만 단순 다수선거제를 이용해요. 영국의 정당은 양당제로 운영되고 독일의 경우엔 비례대표제 성향이 강하다보니 다당제로 운영됩니다.

Q6-1. 이들의 정치 구조에서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요?

독일과 영국은 의회 정치가 상당히 활성화돼있는 내각제 국가입니다. 어떤 형태의 정부든 정권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법부의 온전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죠. 또한 민주주의 정치의 꽃은 의회정치입니다. 내각제의 경우 의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의회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의논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내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7.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구조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많은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 정상화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 국회의원이 의회 내에서 정치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당은 행정부와 협상하고 야당은 항상 여당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가 가진 본연의 기능인 입법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정상화를 통해 정치적 사안은 사법부가 아닌 국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www.ekmtc.com

KMTCLINE

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고려해운이 새로운
100년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전, 더 밝은 미래를 여는 혁신,
더 깊은 가치를 위한 창조, 그 중심에 고려해운이 있습니다.

본사 고객센터비트밀 Tel. 02-311-6114 Fax. 02-6008-8000 부산지점 고객센터비트밀 Tel. 051-461-2800 Fax. 051-463-7281 인천사무소 Tel. 032-883-2800 Fax. 032-232-0825 울산사무소 Tel. 052-261-0234 Fax. 052-261-0233



외대학보란 여정을 출발하며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됐다. 지난 3일 대면 수업이 끝난 후 학교 본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눈 앞에 펼쳐진 우리학교 풍경이 낯설어 사진을 찍었다. 입학 후 많은 학생들로 북적인 우리학교의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이다. 봄을 맞은 캠퍼스엔 새로운 출발을 앞둔 사람들의 활기가 가득 느껴졌다. 비록 다들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말소리에서 느껴지는 설렘을 체감할 수 있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외대학보의 개강호도 발행됐다. 말로만 들던 밤샘 마감을 처음 경험한 후 나온 신문이었다. 내가 정성 들여 쓴 글이 신문 한 면에 실린 것을 보니 첫 마감의 힘듦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다. 단어 하나와 문장 한 줄을 위해 고민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동시에 사람들이 지나가며 학보를 집어가는 것을 보고 외대학보 기자란 사실에 자부심과 책임감이 느껴졌다. 또한 외대학보에 들어오길 잘했다던 생각이 들었다. 사실 외대학보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간단하다. 지난해 기자의 삶을 그린 드라마 '피노키오'를 보고 언론인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마침 외대학보 수습기자 모집 공고를 봤다. 그날이 모집 마감 하루 전날이었기에 고민할 시간도 없었다. 바로 용기를 내어 신청했고 운이 좋게 합격해 외대학보의 일원이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대학보에 대한 내 열정은 증가하고 있다. 요즘 내 머릿속은 학보로 가득하다. 틈날 때마다 다음 제안서에 어떤 주제를 쓸지 고민하는 날 보며 외대학보가 일상에 스며든 것을 체감한다. 또한 외대학보 경험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기사 취재를 위해 처음 직접 가 본 장학금 수여식 현장에서도 느낀 바가 많다. 현장엔 우리학교 동문회보 기자님도 계셨다. 취재원 인터뷰를 할 당시 처음 해보는 일이었기에 떨리고 막막했다. 그때 동문회보 기자님이 능숙하게 취재원을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다. 편만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기자가 취재원 인터뷰에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몸소 배웠다. 기자의 자질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10대 때를 돌아보면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고 적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기존의 생활을 항상 유지하고자 했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것을 꺼렸다. 그렇게 20대가 됐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많은 것이 제한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조금은 재미없고 무료한 내 삶이었기에 마주하는 매 순간이 예측 불가능한 외대학보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큰 전환점이 됐다. 기자란 직업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한 외대학보 생활이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대학생일 때 한 활동 중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내가 어떤 일을 하던 외대학보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 시작한 방중 교육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학보에서의 생활도 세 달째다. 그동안 한 번의 마감을 진행했고 한 번의 신문이 발행됐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학보 기자로서의 출발선에 서 발을 뻗으니 이미 반은 온 것이나 다름없다. 아직은 부족한 기자지만 더 노력해서 학보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꾸준히 발전하는 성실한 기자가 되고 싶다.



지명원 기자

[책 '지구 끝의 온실'을 읽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계를 재건하는 마음에 대해

책 '지구 끝의 온실'은 모든 생명을 죽게 하는 자가증식 먼지 '더스트'가 온 지구를 뒤덮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절박하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남는다. 더스트에 내성이 없는 사람은 이미 다 죽고 생존자는 더스트를 피하기 위해 돛 시티를 만들어 그 안에서 작은 공동체를 구성한다. 반면 돛 시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더스트로 가득한 바깥세상에서 지낼 곳을 찾아다니며 다른 사람을 약탈하거나 빈집을 탄다. 돛 시티 안의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절대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돛 시티를 찾아와 들어보내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을 '침입자'라고 칭하며 망설임 없이 죽인다. 이는 모두 공동체 유지란 명목하에 이뤄진다.

우리의 세상도 소설 속 세상처럼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세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져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초기에 확진자를 향한 날 선 시선들이 있었다. 공개된 확진자의 동선에 당연하단 듯이 비난과 혐오 표현을 퍼부었다. 얼마 후엔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소설 속 돛 안의 사람들과 돛 밖의 사람들처럼 대립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본격화되며 더욱 깊어졌다. 백신 부작용으로 보이는 안타까운 죽음에 사람들은 분노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백신 패스 철폐를 호소하는 글이 다수 올

라왔다. 코로나19는 사람들에게 △슬픔△절망△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했고 우리는 계속 이 감정을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준 사람이 많다. △방역을 위해 노력한 전 세계의 의료진△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한 연구원△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사람들까지 모두 이 시대의 영웅으로 남을 것이다. 희망을 심는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주인공 '레이첼'과 '지수'의 마을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온실에 식물이란 희망을 심었고 이 식물은 결국 더스트로부터 지구를 해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끝까지 마을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간절함이 마침내 세상을 구한 것이다.

우리의 지난 2년은 책 속 상황과 많이 닮았다. 책을 읽는 내내 머릿속에 온실을 그렸다. 레이첼과 지수가 그토록 애정하던 세상이 궁극적으로 책을 덮을 때쯤 그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의 작가인 김초엽 씨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계를 마침내 재건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과 그 마음에 대해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의 노력에도 코로나19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언젠간 이 바이러스는 종식될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세계를 재건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한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영화 '완벽한 타인'을 보고] 우리 사이엔 비밀이 있어야 한다

40년 지기 친구들이 그들의 배우자 혹은 연인과 함께하는 모습을 열었다. 월식을 기다리며 서로의 친분을 다지던 친구들은 기발한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의 규칙은 각자의 휴대전화를 식탁에 올려두고 걸려오는 전화를 비롯해 모든 △문자△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이메일(E-mail) 알림을 공유하는 것이다. 친구들은 모두 자신이 몇몇하던 말을 증명하려는 듯이 식탁에 한 명씩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게임이 시작된다. 게임이 시작되자 각자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지고 친구와의 우정과 부부간의 신뢰가 동시에 무너지는 파국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친구에 대한 혐담을 포함해 △동성애 △불륜△사기△속옷 취향△이한 사진 등 40년 지기 친구나 부부간에 서로 말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까지 생긴다. 시간이 흐르고 갈등이 서서히 가라앉자 친구들은 게임하던 중 생겼던 오해를 풀고 자기 생각을 나누며 그날의 모임을 마무리한다. 영화의 막바지 부분에선 탁자 위의 반지가 계속해서 회전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영화 '인셉션(Inception)'을 떠올리게 하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가상현실 속에서 벌어졌던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영화는 월식이 끝난 상황을 보여주며 게임을 하지 않은 채로 모임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인물의 평화로운 장면을 담으며 끝난다.

인간관계에 관한 실험을 담은 이 영화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한다. 영화에 등장한 인물은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다. 이 점 때문에 완벽한 우정과 사랑의 관계로 보였던 이들이 사실 모두 자신의 본모습을 숨겨온 위선 자처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친구들의 뒷모습엔 각자에 대해 무지했던 그림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며 이들의 완벽했던 관계가 허상에 불과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와 더불어 완벽한 관계는 타인에 대한 완벽한 인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존의 사고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게 한다. 우린 모두 자신을 제외한 서로에게 완벽한 타인 이기에 상대방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상대방의 비밀에 대해 충격을 받게 되고 관계의 단절까지 치닫게 된다. 친구와 부부 간의 관계가 완벽하게 보였던 이유는 서로의 비밀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서가 아닌 월식으로 달이 완전히 가려 지듯 철저하게 숨겨왔기 때문이다. 즉 역설적으로 완벽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각자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들추는 것과 반대로 비밀을 감춰야 한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솔직할 수 있으며 본래의 나를 공개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평생 고민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1064호 학보를 읽고 봄을 맞이할 시간

김민주(중국·중언문 20)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살갓을 에덴 추위가 가고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옷차림은 가벼워졌지만 모두의 어깨가 가볍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수일간 지속돼 큰 피해를 불러왔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루빨리 혼란이 찾아들어 모두가 일상을 즐기는 진정한 봄이 오길 소망한다.

3면에선 최근 청년층 사이 불고 있는 명품 열풍에 대해 다뤘다. 해당 기사에서 다룬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MZ세대에 만연한 명품 열풍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명품 열풍에 따른 부작용과 가품 시장의 규모 확대를 연결해 지적한 점은 특히 흥미로웠다. 과거 시사 프로 그래프에서 가품 소비가 범죄조직 자본 마련의 토대가 될 수 있던 사실을 접한 적이 있다. 무분별한 명품 열풍과 가품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선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소비가 불러올 영향에 대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4면엔 청년의 시각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다룬 기사가 위치했다. 해당 기사에선 이번 대선에 대한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각 후보의 청년 공약이 표면적으로 많지만 다수의 청년이 이를 체감하고 있지 않단 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본인의 지지 기반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몇몇 후보는 우리 사회 내

존재하는 혐오와 갈등을 이용해 빈축을 샀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은 힘든 선택을 마쳤다. 집권 속 당선된 차기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5면은 이번 해 우리학교를 이끌어갈 양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양 캠프 총학) 인터뷰에 관한 기사였다. 이번 기사를 통해 양 캠프 총학의 포부와 공약 실행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어려워지는 비대면 수업과 개인주의 성향 확대로 인한 학우들의 무관심 탓에 학생자치기구는 예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대학 언론과 총학이 학교 행정의 견제 기구 역할을 하며 더 나은 학생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

7면에선 지난해 치른 총장선거에서의 학생 주제 참여율에 관한 기사를 덧붙일 수 있었다. 해당 기사에선 유권자였던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학생 주제 투표 반영비율이 낮아 총장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해 투표를 하지 않은 학우가 많았던 사실을 알게 됐다. 실질적인 권리 행사만이 그 주체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064호 학보를 읽고 새로운 외대의 시작을 열며

김솔리(국제지역·러시아 22)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아직 우리학교는 낯설고 대학생이란 새로운 신분은 어색하다.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병행한 우리학교는 생기를 되찾고 있다. 이번 해 새내기 배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3면에선 명품 소비 인식에 관한 기사를 다뤘다.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영향력 있는 연예인을 따르는 모방 소비와 명품 구매에 대한 이유를 엿볼 수 있었다. △레이첼△오펜린△올로 문화를 다루는 내용을 읽고 우리사회의 명품 선호 현상을 돌아볼 수 있었다.

4면에선 이번 달 9일에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의 청년 공약 정리와 후보들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인터뷰를 다뤘다. △교육△문화△일자리와 취업△수거△청년 복지 분야가 순서대로 정리돼 있어 이를 비교하기 수월했다. △마음에 드는 공약△불호 공약△청년 공약 중본 여부△청년에게 필요한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한 점이 인상 깊었다. 또한 대선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는 청년들의 표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게 됐다.

5면에선 양 캠퍼스(이하 양캠프)의 총학생회(이하 총학)에 관한 △선거 과정△당선 소감△공약 실행 가능성△기대와 우려를 포함한 기사를 볼 수 있었다. 이상적인 공약

에 기대를 불러 넣으면서도 실현 가능성 유무를 꼼꼼하게 정리한 점이 돋보였다. 새로운 양캠프 총학의 행보가 기대된다.

7면에선 우리학교 제12대 총장 선거에 대해 다뤘다. △투표권 획득 과정△낮은 투표율과 반영비율△추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낮은 정치적 효능감과 확연히 보이는 다른 교내 구성원과의 투표율 차이를 알 수 있었다. 학생투표 반영률이 점차 상승해 교내 구성원 모두 총장투표에 관심을 가지고 뜻을 행사하는 앞날을 기대해 본다.

8면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의 원인과 양상에 대해 다뤘다. 국제지대를 둘러싼 두 국가의 갈등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전쟁으로 진행되기까지의 상황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알 수 있었다. 현 사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한 점이 인상 깊었다.

모든 과거의 일이 쌓여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 외대학보를 통해 지나간 학교의 중요 일정을 되짚어 보고 현재도 살펴볼 수 있어 유익했다. 1064호를 읽어보니 기사 문장마다 정보전달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외대학보 독자를 위해 노력한 기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교내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즐기길 소망한다.



빈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길

소년법 존폐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거나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성을 낮추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분노한 여론에 호응하듯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관련법을 바꾸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적정 연령을 고민해보겠다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25일 넷플릭스(Netflix)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이 공개된 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드라마에선 그동안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한번 쯤 접해왔을 △대전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건△숙명여자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 등을 담아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극대화했다. 극 중에선 다양한 죄를 치른 소년범이 재판을 받는 도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엔 또다시 인지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단 입장과 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처벌을 해야 한단 입장이 대립을 이루고 있다.

아프리카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속담

이 있다. 이 속담을 재구성하면 '온 마을이 무심하면 한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소년범을 향한 커져가는 혐오만큼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의 미비함과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문제 삼고 싶다.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선 부모의 역할은 막중하다. 하지만 수많은 소년범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보호해야 할 어른이 부재했다. 재범을 막고 그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선 어른들의 인내와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치인도 이런 말을 꺼내지 않았다. 여전히 반복되는 소년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비난하기에 앞서 아이들이 각 가정과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과연 이런 과정 없이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옳은 판단일까.

짓값을 치러야 한단 울분 어린 목소리 뒤에 우리의 무책임이 가려진 건 아닌지 고민해볼 때다.

박재민 부장 02chaebin@hufs.ac.kr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어느덧 3년째를 맞고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연초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최근엔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훌쩍 넘고 있다. 정부에선 이번 달 후반엔 하루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을 것이며 이를 정점으로 확산세가 누그러질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 반면에 이제 위기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명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일상 회복 시작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달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고, 5일부터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연장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직면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성확인서 발급 등을 위해선 보건업무에 과부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방역패스 시행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불만도 최고조로 치솟은 상황이었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당국은 대응 역량을 고위험군 환자에게 집중한 단점이다. 이러한 결정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이 높아 절대적인 우세종이 됐지만,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치명률은 현저히 낮은 점에 근거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0.09%로 계절 독감과 유사하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6%로 계절 독감의 6배에 달한다.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약 86%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고위험군과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러한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은 미국, 유럽 등에선 우리보다 앞서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중심에 있던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이 낮은 것이 확인되면서부터다. 이 정도면 바이러스와 공존하면서 살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빠르게 일상 회복을 준비 중이다. 우리가 있는 교육 현장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이번 학기를 대면수업 위주로 시작했다. 작년엔 온라인 비대면 수업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던 데 반해, 올해엔 대면 수업의 비중을 가능한 늘리던 계획이다. 많은 수업이 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난 2년여간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다시 보이고 있다. 강의 전후 학생들이 이동하는 분주한 모습,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는 식당 골목의 모습이 대표적인 예이다. 2020년과 지난해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캠퍼스 생활인 셈이다. 반면에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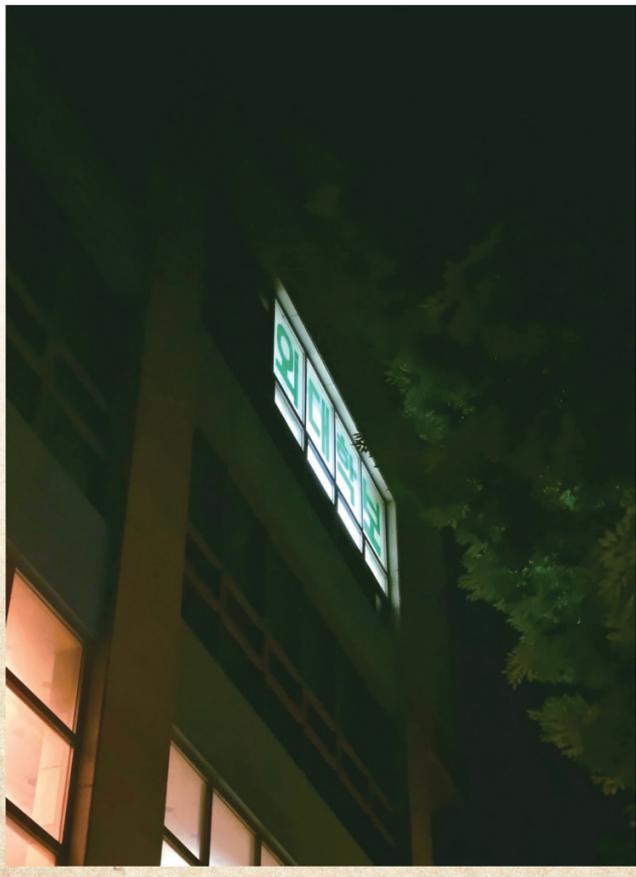
위드 코로나 시대를 시작한 이상 확진자 수의 큰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반면에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을 시작하는 만큼 개인적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유행 초기엔 확진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소수의 확진자에 대한 일종의 낙인효과가 있었다. 확진되었거나, 격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려는 심리나 차별적 행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 확진 사례가 있어서 언제 확진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누가 어떤 문제로 확진이 되었는지 추적이 어렵고, 확진자의 동선 자체도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나△동료△친구 등이 확진되거나 격리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던 2020년 당시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결집해야 하는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체감했다. 전례 없는 충격 속에서 △경제적 손실△사회적 피로감△인명피해가 쌓여갔다. 반면에 2년여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했다 평가를 받았다. 어쩌면 그러한 이유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늦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코로나19의 터널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현재가 긴 마라톤의 마지막 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기자들이 찍은 우리학교



새벽 3시 고요한 학교를 거닐다 보면 유일하게 불 켜진 한 곳이 보인다. 좋은 기사를 위해 글쓰기와 퇴고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곳, 학보사다. 그렇게 학교의 밤을 밝힌 기사는 우리와 만난다. 학보사 기자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사진: 정나윤(사회·미디어 19)

십자말풀이

1						5	5		
1									
			2	2					
3									

가로

1. 박 총장은 정권 발표에서 재정 마련과 대학원 신입생 충원을 제고 등의 공약과 함께 ○○○개편에 관한 공약을 제시했다. (4면 참조)
2. 현대 전쟁의 초기엔 간첩이나 정보의 ○○○을 이용한 전략이 활용됐다. (8면 참조)
3. 팀 'Mars'는 트라올인포테크와의 간담회를 진행해 NFT 발행을 결정했고 해당 ○○○NFT는 '콘텐츠 쇼퍼(contents shopper)'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1면 참조)
4. 그 경험을 바탕으로 비온드코리아에서 '○○○세계일주(△조지아△유라시아 대륙△쿠바)' 강연을 기획했어요. (12면 참조)
5. 양 회장의 호인 '○○○'으로 명명된 이 장학금은 후배들에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단 양 회장의 뜻에 따라 우리학교 최초로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한다. (2면 참조)

세로

1. 이번 달 2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실캠) 국제관 애경홀에서 '2022학년도 우리학교 ○○○'이 진행됐다. (2면 참조)
2. 이번 달 9일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은 현행 ○○○의 크고 작은 부분을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9면 참조)
3.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거짓 뉴스와 선전 △경제 제재△사이버 전략을 사용한 '○○○○(Hybrid)전쟁'이 벌어졌다. (8면 참조)
4. 지원한 정책에 대해선 △○○○○△생활복지 정책 △헌금성지원정책 순으로 높은 응답을 얻었다. (7면 참조)
5. 지난달 25일부터 우리학교 동유럽대학 우크라이나어과 학생회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까지 릴레이 포스터 게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세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2jbb@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정봉비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중남미와 한국을 연결하는 여행사, 비온드코리아의 김봉수 대표를 만나다



중남미 전문 여행사 '비온드코리아'는 중남미 및 특수지역의 여행을 계획 중인 배낭여행자들에게 안전하고 특별한 길을 선사한다. 22년의 여행경력을 가진 김봉수(자연·전자물리 89) 비온드코리아 대표는 국내 외에서 중남미 여행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비온드코리아 설립 후엔 △국내 및 미주 캠핑카 사업△중남미 강연 진행△중남미 여행상품 기획 등 다양한 여행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남미 여행의 길라잡이인 그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자

Q1. 우리학교 전자물리학과에 진학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학창 시절 줄곧 물리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와 함께 잡지 '과학동아'를 빠짐없이 읽었고, 고등학교 때 방송반을 했는데 방송반 담당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셨습니다. 이후 물리 선생님과 가까워져 친구들과 함께 물리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이에 자연스레 우리학교 전자물리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Q2. 전자물리학과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여행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전자물리학과에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 대학원에 진학할 자신이 없어 전공을 살리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물리 분야에 뛰어난 동기가 많았고 물리는 제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다른 분야를 탐색하던 중 중학교 때부터 친숙했고 영국 어학연수를 통해 실력을 다진 영어가 생각났습니다. 이에 대학교 4학년 때 영어를 중시하는 대한항공 승무원 공채에 지원해 합격했죠. 하지만 대한항공 승무원보다 여행사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 지인의 도움으로 하루 동안 외국인을 담당하는 하나투어 인솔자로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행업에 흥미를 느껴 하나투어 공채를 준비해 합격했죠. 이후 하나투어에 입사해 미주 및 중남미 특수 지역을 담당했어요. 하나투어에서 경험을 쌓은 후 '참 좋은 여행'이란 여행사로 이직했어요. 그곳에서 일하던 중 개인 여행사업을 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어 비온드코리아를 창업했습니다.

Q3.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중남미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중남미의 매력은 사람입니다. 중남미 사람은 정이 많고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이런 문화가 잘 맞아 영국 어학연수 당시 브라질 친구와 친하게 지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또한 중남미는 △멕시코의 마야문명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 지대에 자리한 이과수 폭포△페루의 마추픽추 등 나라 별로 각기 다른 고대문명과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죠. 중남미는 차안이 불안정한 여행객의 걱정이 있지만 우범지역을 피하거나 여행자 안전 수칙을 지킨다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Q3-1. 중남미 중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아르헨티나와 쿠바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파타고니아(Patagonia)의 대자연과 세계 최대 폭포인 이구아수(Puerto Iguazu)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볼 수 있어요. 쿠바에선 △럼(Rum)△살사(Salsa)△시가(Cigar)△재즈(Jazz)△퍼커션(Percussion) 등 다양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쿠바는 카리브해의 흑진주란 별칭에 걸맞게 바다가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Q4. 지난해 12월 세계관광기구(WWTO)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객 수가 2019년 대비 76% 감소해 여행 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 이에 대해 비온드코리아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및 미주 캠핑카 쉐어 서비스 '캠핑쉐어' 사업△대한중소여행사 연대(K-TAS)△여행 동행자를 찾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트레블' 기획△외국인 대상의 국내 여행 가이드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어요. 특히 지난해 12월 대한중소여행사를 포함한 다른 여행업계와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의 여행 사업개발과 여행업계 간 연대를 진행할 수 있었죠.

Q5. 2020년 비온드코리아가 국내에서 캠핑카 쉐어 서비스 '캠핑쉐어' 사업을 시작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착한 캠핑카 공유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어요. 2016년부터 비온드코리아는 미국 캠핑카 업체인 '크루즈아메리카(Cruises America)'의 한국 파트너로 미국 캠핑카 여행 서비스를 운영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한국 시장의 캠핑 문화 열풍에 맞춰 '캠핑쉐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공유 서비스는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지만 이를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지분을 줄여 서비스 가격을 줄였죠. 이 서비스는 캠핑카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자동차 공유를 통해 공해를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세미 캠핑카를 가지고 운영했지만 현재 사용자가 늘어 확장형 캠핑카를 사용하고 있어요.

Q6. 지난해 청년창업허브지원센터와 함께 '인문학 세계일주(△조지아△유라시아 대륙 △쿠바)'란 제목의 강연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강연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하는 만큼 보인다'란 문구가 강연 구상 계기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지의 문화를 미리 학습해 풍요로운 여행을 즐기기 위해 계획했어요. 줄곧 비온드코리아에서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객과 직접 만나 음식을 통해 문화를 체험하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어요. 또한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주기 위해 '클래식 인문학을 만나다'란 강연도 진행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비온드코리아에서 '인문학 세계일주(△조지아△유라시아 대륙△쿠바)' 강연을 기획했어요. 비온드코리아가 기획한 강연을 △박성빈 여행 사진작가△이종원 여행작가△이재혁 부산외대 러시아학과 교수와 함께 진행했죠.

Q7. 오랜 기간 여행사 대표로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013년 볼리비아 항공사 총판 계약을 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총판 계약을 위해 1년간 거의 매일 볼리비아 항공사에 전화했습니다. 새벽에 전화하는 것과 영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힘들었어요. 다행히 총판 계약이 성사돼 여행객이 안전하고 빠르게 볼리비아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텃죠.

Q8. 일 외의 삶에 대해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나요?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일할 때와 삶의 가치관이 같아요. 비온드코리아를 설립할 당시 여행객이 만족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노력했죠. 덕분에 비온드코리아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어요. 또한 일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짧은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자로서 고난에 닳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Q9. 여행업을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많은 여행 경험과 실무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여행 경험은 다양한 여행상품 아이디어 기획에 도움이 됩니다. 여행업에 종사하면 일을 하며 언제든 전 세계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상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죠. 우리학교 후배들이 여행업에 많이 도전하면 좋겠어요.

나라나 기자 04rinaisme@hufs.ac.kr

Design +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평계와 전자는 최고의 제조기술력에 개발력을
구비하여 EMS를 넘어 DMS로 나아갑니다.

PJ Electronics
Design &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Provider